

은행업종 Insight Report



은행주 하반기 바벨투자전략 제안

明珠闇投(명주암투, 투자가치가 높으나 시장이 알아주지 못함을 표현)

2026년(6/9일 기준) 은행주는 +18.1%ytd 상승하였으나 KOSPI +92.1%ytd 상승 대비로는 74.1% Underperform 중. 주주환원을 상향 및 최대실적 지속에도 AI 수혜주 중심으로 KOSPI가 큰 폭 상승함에 기인. 수급측면에서는 KOSPI(기관 32.4조원 순매수 대비 외국인 118조원 순매도)와 달리 은행주에 대한 기관투자자(1.9조원) 순매수가 외국인투자자 순매도(1.4조원)를 상회하였음에도 개인투자자 선호도에서 소외 중인 상황

은행주 총주주환원율은 지난 3년간(23~25년) 24.5조원 실현 이후 2026년 평균 46.5% 포함 향후 3년간(26~28년) 38.6조원을 예상하며, 이는 시가총액 대비 21.1%로 매우 높은 수준. 더불어 2026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과 2027년 이후 '비과세배당'이 시행되면서 장기투자자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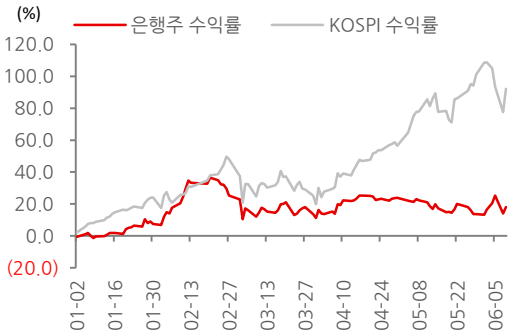
실적측면에서 지배주주순이익의 1Q26 +6.2%yoy 실현에 이어 2026년(E) NIM +5bp 상승(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으나 Flat 가정) 및 원화대출성장 +5.0%에 따른 이자이익(+5.4%yoy) 큰 폭 증가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손익 감소에도 증권 자회사 수수료이익 및 주식이익 증가 등으로 상쇄하면서 비이자이익 보수적(+3.3%yoy)으로 소폭 증가 가정. 더불어 경상적 대손비용 감소 크지 않으나 은행 및 자회사 추가 총당금 부담 축소로 대손충당금전입 (-8.7%yoy)도 개선 전망. 이에 따라 +7.9%yoy인 24.4조원의 최대실적 예상 주주환원 상향과 최대실적 지속에도 은행주 PBR 0.7배로 KOSPI 2.1배 대비 Valuation gap 큰 폭으로 확대된 상황이며, ROE 9.5% 대비로도 저평가 심화

2026년(E) 하반기 바벨투자전략 제안

수익률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도 인정합니다. 다만 경기, 물가, 환율, 유가 등 거시경제지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히 실질금리 마이너스에 따른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정책 지원과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지속성,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 등 주식시장 추가 상승 기대감도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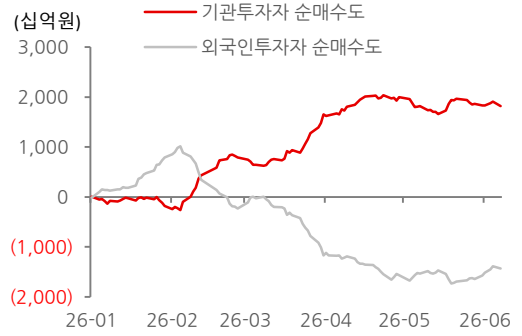
이러한 투자환경에서 바벨투자전략(안전자산+고위험·고수익자산 배분) 제안 합니다. 금리상승 수혜와 최대실적 및 높은 주주환원율이 지속되고 있는 은행주를 안전자산에, 주식시장 상승 수혜주인 증권주를 위험자산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금융주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기존 고성장 주도섹터 + 은행주' 또는 '가치주 및 배당주 + 증권주' 혼합은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좋은 투자전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주 투자선호도는 증권 자회사 이익모멘텀이 유효한 시중은행을 선호하며, 특히 업종 내 가장 높은 주주환원율을 예상하는 KB금융을 최선호주로 제안합니다(5/26일 발간한 '2026년(E) 하반기 금융업종 바벨투자전략 제안' 참조).

Fig.1: 2026년 은행주는 +18%ytd 상승하였으나 KOSPI 대비로는 74% Underperform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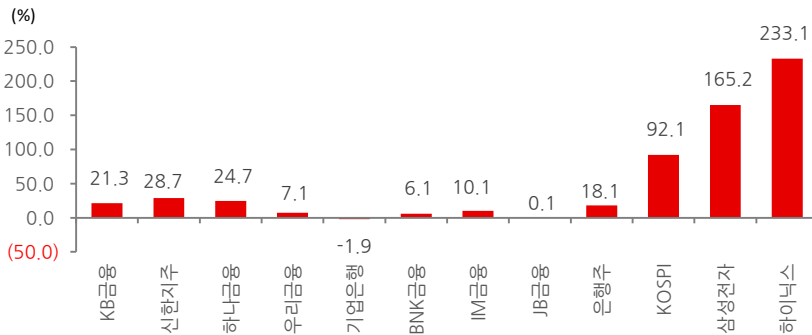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BNK투자증권
주: 6/9일 종가 기준

Fig.2: 수급측면에서 은행주 기관투자자 1.9조원 순매수 대비 외국인투자자 1.4조원 순매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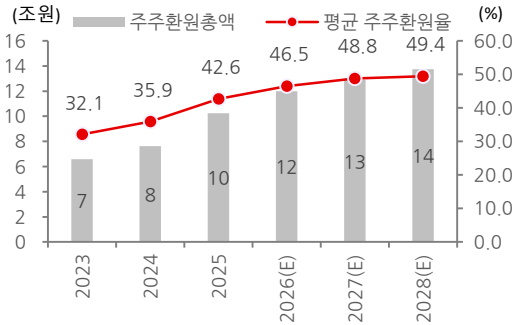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BNK투자증권
주: 6/8일 기준

Fig.5: 개별은행주 수익률 기준으로는 지방은행 대비 시중은행이 상대적으로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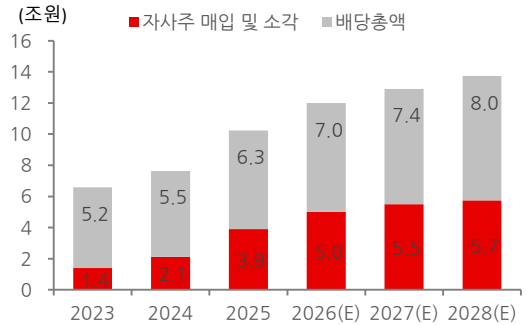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BNK투자증권
주1: 6/9일 종가 기준

Fig.6: 2026년 주주환원총액 12.0조원 및 평균 주주환원율을 46.5%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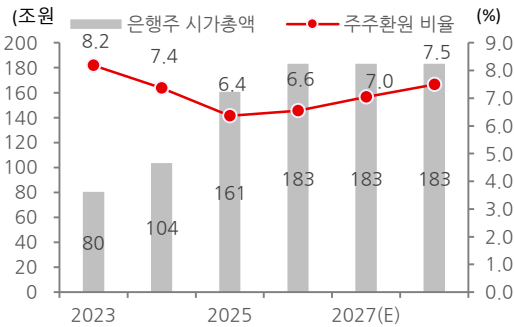
자료: 각 은행, BNK투자증권
 주1: 주주환원총액은 당사 커버리지 8개은행 합산 기준
 주2: 평균 주주환원율은 당사 커버리지 8개은행 산술평균 기준

Fig.7: 총주주환원액(자사주 매입 및 소각 + 배당총액) 지난 3년간(23~25년) 24.5조원 실현 대비 향후 3년간(26~28년) 38.6조원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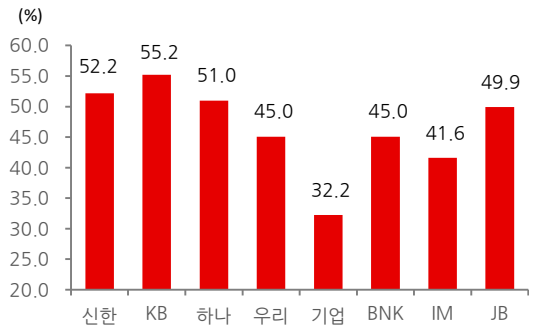
자료: 각 은행, BNK투자증권
 주: 당사 커버리지 8개은행 합산 기준

Fig.8: 향후 3년간(26~28년) 주주환원총액은 현재 시가총액의 21.1%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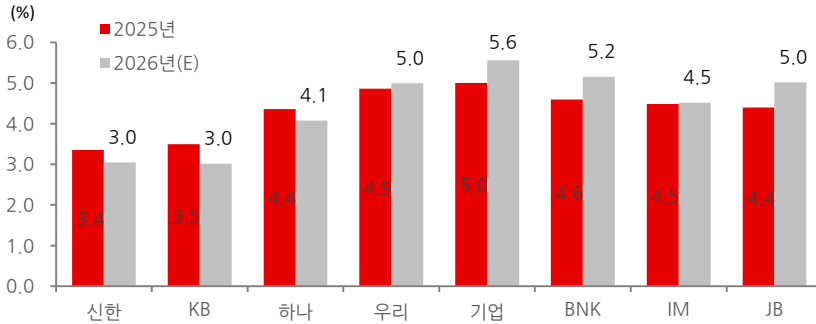
자료: 각 은행, BNK투자증권
 주: 은행주 시가총액(6/8일 기준) 및 주주환원총액은 당사 커버리지 8개은행 합산 기준

Fig.9: 2026(E) 개별은행주 총주주환원율 전망



자료: 각 은행, BNK투자증권

Fig.5: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감안해도 은행주 평균 배당수익률 3.9%로 KOSPI 1.4% 대비 매우 높은 수준



자료: Quantiwise, BNK투자증권
주1: 6/8일 증가 기준

Fig.1: 2026년 및 2027년 상장은행 과세 기준 여부와 주주환원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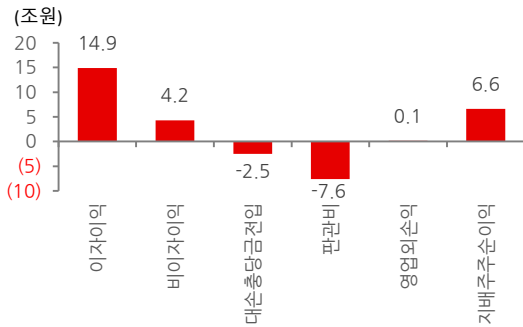
상장은행	신한지주	KB 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BNK 금융	IM 금융	JB 금융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비과세배당	27년 적용	27년 적용	27년 적용	26년 적용	미적용	미적용	27년 적용	미적용
2025년 주주환원율	50.2	52.4	46.8	36.6	30.8	40.5	38.8	45.0
2026년(E) 배당기준일	52.2	55.2	51.0	45.0	32.2	45.0	41.6	50.0

자료: 각 은행, BNK투자증권

주1: 2026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이후 2027년 '비과세배당' 적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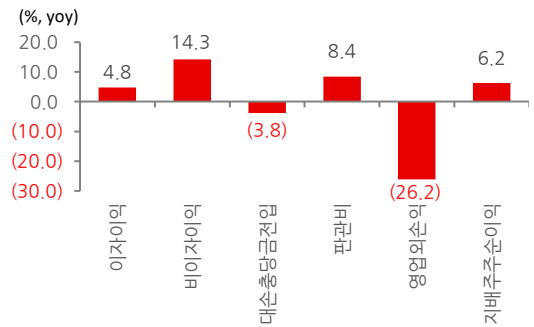
주2: BNK금융 및 JB금융은 2027년 이후에도 배당총액 10% 증가시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전망

Fig.3: 1Q26 은행주 주요부문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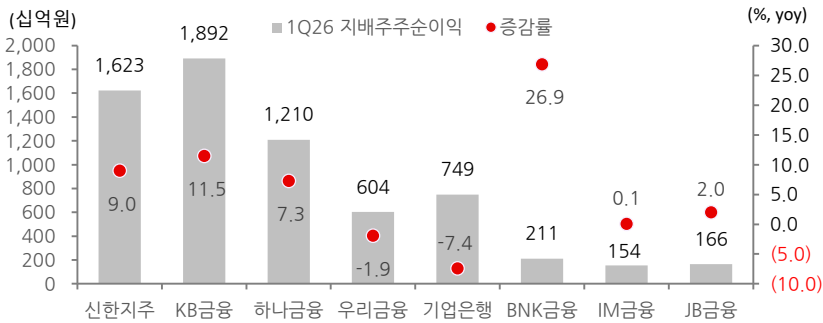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BNK투자증권
 주: 당사 커버리지 8개은행 합산 기준

Fig.4: 1Q26 은행주 주요부문 실적 증감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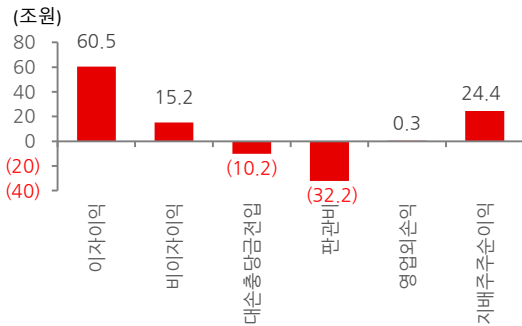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BNK투자증권
 주: 당사 커버리지 8개은행 합산 기준

Fig.5: 1Q26 지배주주순이익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관련손익 감소에도 주식시장 큰 폭 상승에 따른 증권 자회사 수수료이익 증가로 상쇄하면서 시중은행 양호한 실적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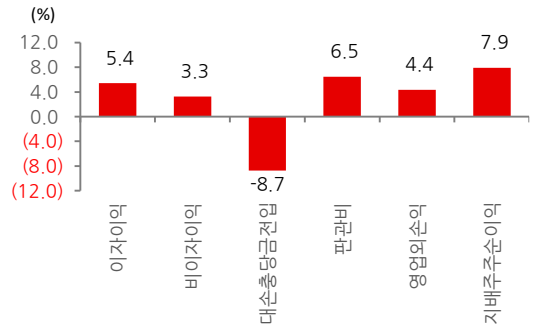
자료: 각 사, BNK투자증권
 주1: 4Q25에 이어 1Q26에도 ELS 과징금 추가 적립(KB금융 980억원 및 하나금융 340억원) 감안하면 시중은행 실적은 더욱 양호한 상황
 주2: BNK금융은 1Q25 삼정기업 및 금양 등 추가 총당금적립 920억원 소멸 효과 영향

Fig.3: 2026년(E) 은행주 주요부문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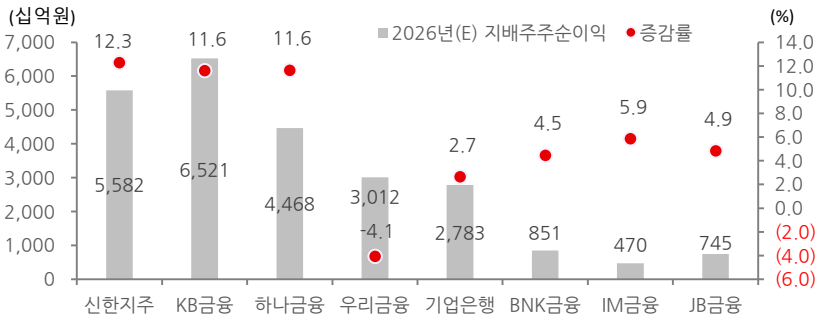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BNK투자증권
 주: 당사 커버리지 8개은행 합산 기준

Fig.4: 2026년(E) 은행주 주요부문 실적 증감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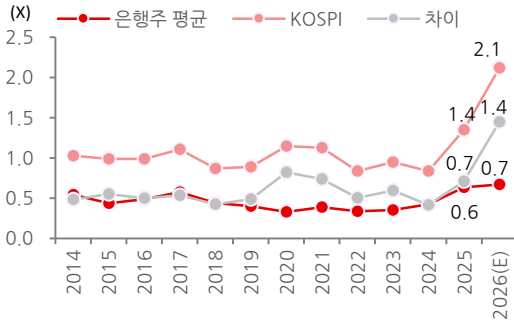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BNK투자증권
 주: 당사 커버리지 8개은행 합산 기준

Fig.5: 2026년(E) 지배주주순이익은 보수적 비이자이익 전망과 판관비 경상적 증가 상회(교육세 인상 및 성과급 지급, 자회사 영업 확대, 명퇴비용 증가 등)에도 이자이익 큰 폭 증가와 대손충당금전입 감소로 상쇄 가능성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이 증권 자회사 실적 큰 폭 개선이 지속되면서 더욱 양호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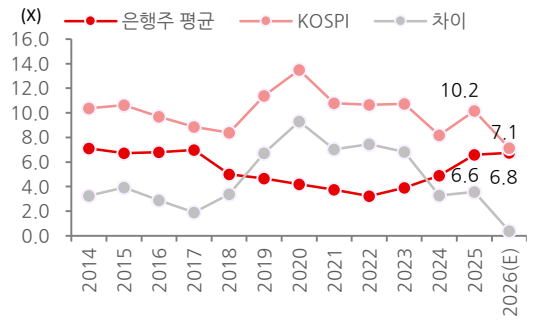
자료: 각 사, BNK투자증권

Fig.3: 2026년(E) KOSPI PBR 2.1배 대비 은행주 PBR 0.7배로 PBR Gap 1.4배까지 확대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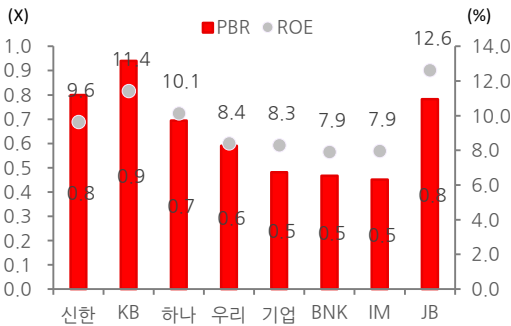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BNK투자증권
 주1: 당사 커버리지 8개은행 산술평균 기준
 주2: 6/8일 종가 및 KOSPI PBR(TTM) 기준

Fig.4: 2026년(E)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종 큰 폭 이익 증가 컨센서스 감안 KOSPI PER 7.1배에 불과하여 은행주 PER 6.8배 대비 PER Gap 차이는 크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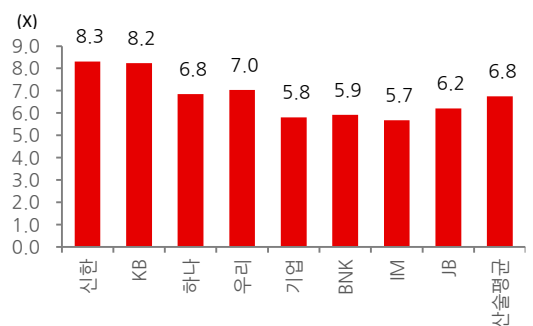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BNK투자증권
 주1: 당사 커버리지 8개은행 합산 기준
 주2: 6/8일 종가 및 KOSPI PER(Fwd.12M) 기준

Fig.3: 개별은행주 PBR 현황



자료: Quantwise, BNK투자증권
 주1: 6/8일 종가 기준

Fig.3: 개별은행주 PER 현황



자료: Quantwise, BNK투자증권
 주1: 6/8일 종가 기준

투자등급 (기업 투자 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 대비 해당 종목의 예상수익률을 의미함.)

기업: 6개월 예상수익률 / 매수(Buy) +15% 이상, 보유(Hold) -15~+15%, 매도(Sell) -15% 이하

산업: 6개월 투자비중에 대한 의견 / 비중확대(Overweight), 중립(Neutral), 비중축소(underweight)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비율(2026.3.31기준) / 매수(Buy) 75.4%, 보유(Hold) 24.6%, 매도(Sell) 0.0%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입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